Incredible Mumba!

RaonAtti 8th India

2012. 10
Vol.2

the general editor by Airpita
editor by Naina
illustration by Sameer
photograph by Rahul
advice by Anushka

Contents

1. Boys' Home 식구들 소개
2. 일정표
3. 10월의 인도팀
4. 10월의 행사
5. End Poverty Campaign
6. Library Project
7. 에세이

1. Boys' Home 식구들 소개

알렌

라온아띠 인도팀의 코디네이터이자 Bombay YMCA Andheri Branch의 기관장. 프링글스 과자 통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귀여운 외모의 소유자이다. 누가 첫 기수는 일이 널널하다고 했는가. 그의 칭찬은 인도팀을 일하게 한다. 나이스와 엑설런트를 연발하는 그의 매력에 빠진다면 당신은 이미 알렌의 노예!

라파엘

Andheri Branch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고 쉽게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오피스 식구. 하루에 열 번이 넘게 찾아가도 언제나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는 그는 마치 살아있는 붓다를 보는 듯하다. (초코)우윳빛깔 라파엘!

선데쉬

아, 그 누구보다 착한 선데쉬! 오피스의 Social Worker로 이곳 주변 100가구 정도의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수줍은 미소를 띠며 조용히 다가와 특유의 중저음으로 '함홍게까미야' (인도의 유명한 떼창 노래)를 부르는 그의 모습은 언제나 유쾌한 웃음을 자아낸다.

Boys Home 아이들의 house parents.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자상하게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이곳의 책임자. 학교 숙제부터 진로 상담까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65명의 아들들을 살피시느라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계신다. 여기에 라온아띠 5명 까지 더해져 자식이 70명으로 늘어났다는 후문이...

아이 & 바바

엉클셰프 프렌시스 버이야

Boys Home의 식사는 그의 손에 달렸다. 약 70인분의 식사를 만들어도 맛은 고급레스토랑이 부럽지 않다! 얼마 전 축제 기간에는 우리를 집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짜이 한잔에도 혼을 싣는 그는 프로페셔널한 셰프!

Sameer보다 한 살 많다는 사실로 우리 모두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트린 주인공. 살짝 위압감을 주는 외모와는 달리 언제나 활짝 웃으며 인사하고 때로는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Boys Home과 관련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 세심한 그가 가끔 식사 때 챙겨주는 바나나 하나에 우리는 행복하다.

미스터 카츄아참

이곳의 환경미화를 도맡아 하시는 분. 카츄아참은 힌두어로 모기향을 의미하는데, 모기에 물리는 우리가 안쓰러웠던 아저씨가 한참동안 '카츄아참'을 주고 싶다고 외쳐도 알아듣지 못했던 일화를 계기로 그의 별명이 되었다.
한동안 숙소에 출몰했던 (개 만한)쥐를 박멸해 주시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에게 '모두 잡아 피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안심시켜 주셨던 든든한 분!

(*바바=father, 아이=mother, 엉클=uncle, 버이야=older brother)

2. 일정표

2012 October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이사	5 오리엔테이션	6 Joy of Giving Event
7	8 Morning Tuition Basketball Coaching	9 Morning Tuition	10 Morning Tuition Basketball Coaching	11 Morning Tuition	12 Morning Tuition Basketball Coaching	13 World Challenge Morning Tuition
14	15 Morning Tuition EP Campaign Ashakiran	16 Morning Tuition EP Campaign Saraswati	17 Morning Tuition EP Campaign YWCA	18 Morning Tuition EP Campaign 준비	19 Morning Tuition EP Campaign 준비	20 Morning Tuition EP Campaign Performance Day
21	22 Morning Tuition	23 Garba 대회 Morning Tuition soccer/Judo Coaching	24	25 Morning Tuition soccer/Judo Coaching	26 Morning Tuition	27 Morning Tuition soccer/Judo Coaching
29	30 Morning Tuition	31 Morning Tuition soccer/Judo Coaching				

3. 10월의 인도팀

● 아침 튜션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꼬꼬마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은 4명~6명 사이. 어떤 친구는 열심히 1부터 100까지를 쓰고, 어떤 친구는 영어 알파벳 공부를, 또 다른 친구는 덧셈 뺄셈을 공부한다. 가끔은 요녀석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꾀를 부리나 싶게 뺀질뺀질 거리지만 보조개가 폭 들어간 그 미소 한방이면 마음이 스스르 녹아 쉬는 시간을 주고 만다. Anushika가 가르치는 Siddesh는 함께 공부한 후로 성적이 많이 올라 선생님께 연락이 오기까지 했다! 이렇게 우리의 아침은 개구쟁이들과 함께 시작하고 있다.

● 농구코칭

농구를 처음 도입한 기관답게 농구 코트가 잘 마련되어 있고, 아침 저녁으로 농구 코칭이 이루어진다. YMCA 멤버들을 위한 코칭도 있지만, 오전 시간에는 Boys Home 친구들만을 위한 시간.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아이들을 따라 뛰었지만.... 스포츠맨인 Rahul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의 실력을 따라가지 못해 애를 먹었다. 그래도 디디(누나), 버이야(형)와 같이 농구 코칭을 하겠다며 '마이 파트너, 마이 파트너!'를 외치는 아이들. 정말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어! 하지만 Library Project를 시작하며 아쉽게도 농구 코칭 대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 축구코칭

전직 축구 코치 Rahul의 경험을 살려 새롭게 개설한
코칭 수업! 화, 목, 토요일 농구 코칭이 없는 오전시간에
이루어진다. 총 21명의 아이들과, Anushika와 함께하고 있다.
축구에는 문외한인 아이들에게 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문이...
이 코칭으로 인해 몇몇 아이들의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농구에서 농구와 축구로 바뀌기도 하였다. 이곳의 오피스에서도
선뜻 축구공 다섯 개와 축구 골대 두 개를 마련해 주셨다. 좋은
운동화를 신고 뛰지는 못하지만, 함께 새로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 파견 기간이 끝나는 2월 전까지 아이들이
룰을 익히고 스스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구 코칭
팀의 목표다.

● 유도코칭

유도 유단자인 Sameer의 바람으로 만들어진 유도 코칭.
축구 코칭이 이루어지는 화, 목, 토요일 오전 시간에 진행된다.
총 일곱 명의 아이들(얼마 전 한 명이 더 지원하였다!)과 Naina가
함께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법부터 앞구르기 뒤구르기
하는 법까지 같이 하고 있는 Sameer는 이 시간이 즐겁지만 괴롭다.
열심히 뒹굴었지만 아이들에게 오늘 무슨 코칭을 들었냐고 물으니
Gymnastic을 들었다는 슬픈 이야기도 들려온다. 오피스의 Allen 코디도
아이들이 Gymnastic을 아주 즐거워한다고 그를 격려했다는..
그래도 유도 코칭 팀은 즐겁게 아이들과 구르고 있다!

● 등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시험기간인 요즘은 토요일까지)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을 함께 걷고 있다. 자동차와 릭샤가 혼잡하게 다니는 길을 두 번이나 건너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도 되는지 (한 손을 잡을 것인가, 양 손을 모두 내줄 것인가!), 손을 잡고 걷는 것이 너무 위험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열띤 토론까지 하며 우리 팀원들은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 특히 학교에 도착하고 나서 아이들이 마구 날리는 플라잉 키스와 작별인사에 한 동안 교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기도 한다. 가끔 어떤 친구는 아껴왔던 뽀뽀를 디디(누나)들에게 해주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는 먹지 않고 고이고이 모셔둔 초콜릿을 하나씩 몰래 손에 쥐어주기도 한다. 10월 인도의 태양은 아직도 뜨겁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이들로 인해 더 뜨겁다.

● 식사 및 티타임

우리 팀은 이곳에서 점심과 저녁 두 끼를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서 먹고 있다. 처음에는 손으로 밥을 먹는 문화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단원들이 숟가락보다는 손으로 먹는 것이 더 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기쁘게 식사를 하고 있다. 고기를 좋아하는 단원은 Boys Home의 식단을 걱정했지만 지금까지는 잘 적응하고 타의로 채식을 하며 살고 있다. Meatless Monday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고기반찬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런 식단에도 완전히 적응한 우리는 살이 찌고 있다. 매일 4시에 있는 티타임에는 Boys Home 아이들이 모두 모여 인도 차인 '짜이'를 마시고, 비스킷을 먹는다. 열심히 일하는 중간에 있는 티타임은 꿀맛 같고 아이들과 주고받는 시답잖은 농담에 허허 웃기도 한다.

4. 이달의 행사

● Joy of Giving Week

뭄바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빈부 격차를 자랑하는 곳이지만, 종교상의 이유로 자선이나 기부가 아주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정 축제 기간들을 비롯하여 절기마다 기부를 장려하는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 보이즈홈에 왔던 주가 바로 그 중 하나인 Joy of giving week였다. 이 날 보이즈홈을 재정적으로 지탱해주는 기부자분들이 와서 기관을 둘러보고,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을 본 뒤, 아이들에게 장난감과 음식을 나눠 주었다. 아이가 아이에게 초콜릿을 건네는 모습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나눔을 가르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YMCA World Challenge

2012년 10월 13일 전 세계 Y에서 YMCA의 발명품인 농구공을 던져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이 날 전 세계 목표는 500만개! 우리는 참가자 등록부터 안내, 골 개수 카운트와 상품 전달까지 이곳저곳에 흩어져 행사 도우미 역할을 하였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끊임없이 몰려드는 인파 속에 카운트가 올라갈수록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쁜 일인지에 배울 수 있었다. 이 날 Andheri YMCA에만 1400명이 넘는 사람이 와서 공을 던졌고, 며칠 뒤 당초 목표했던 500만개를 달성했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 Hoop springs eternal!

● Garba Competition

10월 23일 Andheri Y에서는 수백명의 아름다운 Gopi(양치기 소녀)들이 모여 Garba를 췄다. Navaratri 축제 기간을 맞아 전통 춤인 Garba 솜씨를 겨루는 Competition이 열린 것이다. 이 춤은 Krishna라는 신이 아름다운 Gopi들과 어울려 춤을 췄던 일화에서 비롯하는데, 춤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강강술래와 같이 다함께 즐기는 놀이에 가깝다. 힌두 신화에서 비롯한 전통이지만, 종교에 상관없이 여성들은 예쁜 옷과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을 하고 한자리에 모인다. 우리도 이날 인도의 전통 옷인 Saree와 Doti를 입고, 함께 춤을 춰볼 수 있었다. Naina는 당당히 3위에 입상하며 율동패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5. End Poverty campaign

● 취지 및 목적

10월 17일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Andheri 지역의 빈곤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우선 빈곤이라는 개념의 확장을 통해 아이들이 본인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개념의 빈곤 중에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육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교육문제에 있어 서로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빈곤이라는 것이 개인 혹은 지역 사회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며, 연대를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 과정

1) Community Meeting

한국에서 라온아띠 8기로서 받았던 빈곤과 관련한 교육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여 발표하였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활동가들을 비롯해 마을 주민들, 우리 또래의 학생 등 약 40여명이 참여하였다. 발표에서는 빈곤퇴치 캠페인의 취지와 빈곤의 다양한 개념 및 이전 기수에서 했던 빈곤퇴치 캠페인의 예시들을 다루었고, 팀 내에서 나왔던 캠페인 아이디어들도 공유하였다. 발표 후에는 Andheri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미팅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어떻게 캠페인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다. 우리가 이 미팅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Andheri 지역의 구체적인 현안이나 캠페인 주제 선정 등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할 기관들이 정해지고 캠페인 기획을 함께 할 지역 청년들을 만났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2) Meeting with Youth in Andheri

지역 미팅 이후 우리 안에서도 빈곤 자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팅에서 방법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두 번째 미팅에 앞서 지난 한 달 간 우리의 관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느낀 빈곤문제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미리 논의해보았다. 그를 통해 다음 네 가지의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미팅에 참여한 청년들은 위의 주제들에 대해 크게 공감해 주었고, 특히 그들 역시 인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폭력과 위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교육을 통해 극복 가능한 것들이고, 우리들과 협력을 약속한 기관들이 대부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주제	내용
폭력	아이들이 파키스탄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종종 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았고, 아이들 사이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나 피부색이 다른 아이를 놀리고 괴롭히는 것을 목격함. 학교나 가정에서 아이들을 향한 폭력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
환경	사람들이 집 안은 깨끗이 유지하지만, 집 밖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악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당신의 영역을 늘리세요.' 라는 식의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생각해볼 수 있음.
교육	거리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기본적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음. 우리의 고민은 이 문제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Action Plan을 짜기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함.
위생	손으로 음식을 먹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아이들이 종종 맨발로 다니다가 발을 다치곤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자주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3) Education Session with Middle/High School Students

우선, 빈곤의 다양한 개념에 대해 교육하였다. 돈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거나 질병에 노출되어 있거나, 다름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등 다양한 결핍의 상태가 빈곤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교육의 빈곤 상태에 초점을 맞추었고, 교육이 빈곤을 극복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문제를 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의 빈곤 문제가 인도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세계지도 등 시각자료를 통해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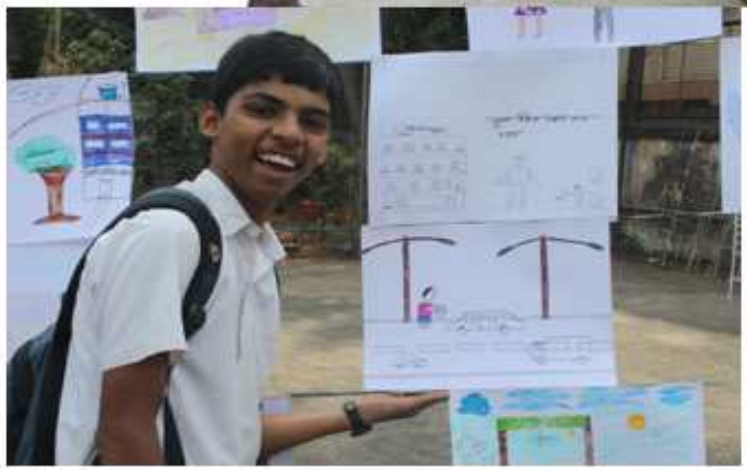
토론에서는 '왜 내 친구는 학교에 올 수 없을까,'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교육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솔직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해 주어서 고마웠고, 그 중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답변들도 많아서 우리의 빈곤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토론 이후에는 발표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에 선생님이나 활동가들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준비한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주제 선정이나 전달하는 방식, 내용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그림 주제에 대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지적이 많아 삼일 째 발표부터는 구체적인 주제를 던져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토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도한 바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어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어 넣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초등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 즉 어느 정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빈곤을 경험하거나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뭄바이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village 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로 가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같은 피드백을 통해서 단순히 발표 자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뭄바이라는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4) Performance with Community

기관별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 같이 모여 End Poverty Campaign을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 날 우리는 교육에 참여했던 아이들과 함께 빈곤과 관련된 단어들을 가지고 jumble game을 하고, 강남스타일을 연습하여 퍼포먼스를 하였다. '빈곤'이라는 어려운 주제로 모두가 만났지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빈곤이라는 것도 함께라면 즐겁고 힘차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우리 활동을 볼 수 있는 Youtube 링크:
http://youtu.be/0KV_4oOd-dM



6. Library Project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곳 Andheri YMCA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이 있다. 인도에 오기 전부터 이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기관의 요구를 들어왔던 터라 처음 도서관을 둘러본 날부터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왔다. 도서관의 현재 장서는 약 3,000권 규모. 아이들을 위한 Story Book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권위 있는 출판사의 백과사전이나, 고전 전집 등 좋은 책들도 많이 있다. End Poverty 캠페인이 끝난 10월 마지막 주 우리는 Library Project 계획에 들어갔다.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은 아래 다섯 가지의 작업 목표를 가지고 1번 분류 작업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중이다.

1. 장서 재분류 작업과 컴퓨터를 이용한 검색/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2. 공간 확보와 가구 배치(Ground Floor의 넓은 공간으로 이동)
3. 도서 기부함 설치
4. Toy Library 구성
5.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12월 말 예상)

5인 5색

Essay

이병찬(Sameer)

인도의 밤에서 인도를 찾는다

인도의 겨울은 따뜻하다. 한국의 겨울이 그리울 만큼 인도는 따뜻하고 포근하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상쾌한 아침 공기와 함께 인도의 향이 물씬 느껴진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과 자동차 사이에서 북적이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디에서 왔는지 묻는다. 처음에는 중국인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아니라고 답하면 그럼 일본인이냐고 되묻는다. 나는 한국이라고 답한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이라는 나라를 설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보거나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인도에서 라온아띠로 활동하며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두 달간 인도에서 생활하며 느낀 인도는 다채롭다. 어떤 것이 진정 인도의 모습인지 모를 만큼 다양하다. 인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12가지의 공용어(공용어 이외의 수십 가지의 언어만큼)에서 느껴지는 다양성과 다채로움이 공존하는 인도이다. 그 만큼 인도인의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된다. 아직은 인도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어떤 모습도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 처음엔 낯선 이방인에게 날선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후 먼저 다가가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다가 어느 한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다. 인도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선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될 것 같다. 느낀 바로 인도 사람들 다수는 친해지면 자신의 집으로 손님을 초대한다. 집으로 초대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 자신과 함께 밥을 먹는 식구들, 자신의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손님으로 초대 받아 여러 인도인의 집에 갔다. 항상 빈손으로 찾아갔는데, 왕처럼 대접받은 것 같아 마음 한구석에 미안한 마음이 남는다. 앞으로 누군가의 집에 초대 받는다면 빈손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다양한 종교가 함께 어울리며 축제를 즐기는 인도의 밤은 화려하다. 축제의 행렬이 도로를 점령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더라도 인도 사람은 여유롭다. 도로 한복판에 가마와 비슷한 행렬이 지나가고, 소나 염소가 도로에 뛰어 들어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인도인의 대처법은 크게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나가며 욕을 할 법한 상황인데, 인도인들은 너그럽게 지나친다. 그리고 축제 기간이면 너나 할 것 없이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것을 즐긴다. 마치 2002년 월드컵 기간의 우리 모습처럼 보인다. 인도의 밤이 화려한 이유 중 하나는 폭죽의 사용이다. 가끔 큰 소리에 놀라기도 하지만 화려한 폭죽을 터트리며 지나가는 인도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등이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춤을 추고, 물을 서로 나눠 마시며 웃고,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화려한 의상을 입은 인도의 밤이 화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같은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인도 사람들 대부분은 축제에 같이 참여한다. 전통적 문화로 축제를 즐기고, 화합을 한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꾸밈없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부럽고 더욱 설레게 만든다. 종교와 언어가 달라도 함께하는 인도인의 모습, 상상으로는 쉽게 그려지기 힘들다. 직접 인도에 와서 인도의 축제를 체험해야 할 것이다.

다음엔 인도에서 사귄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채선영(Airpita)

인도 문화 적응기, 사리를 입다

인도에 온 지도 어느덧 두 달, 우리 팀의 생활도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한 느낌이다. 이제는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뭄바이라는 도시는 알면 알수록 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블록 하나를 두고 한편에는 높은 빌딩의 오피스와 화려한 백화점이 줄 선 거리가 또 한편으론 열 평이 채 안 되는 단칸방에 대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쪽방촌이 공존한다. 수많은 오토릭샤와 자동차가 뿜어내는 공해와 거리에서 천막 하나에 의존해 살아가는 홈리스, 길거리에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와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 한 채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이렇듯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도시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축제가 되면 온 마을사람들이 정성껏 동상을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어울려 거리를 행렬하는 등 여느 촌락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인도인들은 언제나 열려있다. 작은 어린아이부터 머리가 성한 노인까지 처음 보는 이방인을 경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나마스테! 한마디에 웃으며 화답하고, 우리와 기꺼이 친구가 되어준다. 우리는 그들과 국적도, 언어도, 피부색도, 심지어는 머리카락과 눈 색깔마저 다르지만, 항상 그들 문화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인도에서 만난 친구들은 자신들의 마을로, 또는 어느 행사에 우리를 초대하는 호의를 항상 잊지 않는다. 저녁식사를 보통 8시에 하는 인도에서 밤은 종종 길어져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자신의 구역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인도인에게는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라는 걸 알기에 우리도 쉽게 거절하지 못 하고 있다.

지난 10월엔 열흘 간 이어진 Navratri가 있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Andheri YMCA에서도 Garba Competition을 개최했다. Garba(혹은 Dandiya Raas)라는 춤은 Krishna라는 바람둥이 신이 100명의 Gopi(양치는 소녀)들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추었던 신화에서 비롯한다. 그래서 이 기간 마을의 모든 여자들은 Gopi가 되어 가장 좋은 옷과 장신구로 치장을 하고 함께 춤을 춘다. 그리고 이 축제의 마지막 날인 Dassera부터 다시 인도 최대의 축제인 Diwali까지 인도는 다시 축제 준비에 들어간다. 상점들은 대규모 세일을 하고, 여자들은 새 옷을 사고 장신구를 사들인다. 안 그래도 원색의 화려한 옷을 즐기고, 뱅글, 목걸이, 귀걸이, 빈디 등 장신구를 좋아하는 인도의 여성들은 이 기간 더더욱 화려해진다. 사실 보면서 예쁘다고는 생각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인도의 전통의상을 이 기회에 드디어 입어 볼 수 있었다.

남성들이 Doti라고 부르는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심플한 셔츠를 주로 입는 데 반해 여성들의 전통의상은 소재부터 디자인, 색깔이 아주 다양하다. Saree는 바느질 하지 않은 한 장의 천을 둘러 입는 인도 고유의 전통 의복인데 보통 6~7m 길이를 자랑한다. 서부 라자스탄이나 구자라트주에서는 Ghaghra라고 부르는 원통형의 옷을 입기도 하며, 펀잡이나 카슈미르에서는 Punjabi Dress라고 하는 무슬림 복장을 하기도 한다. 보통 젊은층이 Kurta라고 하는 긴셔츠에 바지인 Pijama를 더한 차림을 즐기는 반면, 결혼을 한 여성들은 Saree를 즐겨 입는다. 뭄바이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을 한 젊은이들도 흔한 편이지만,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전통 복장을 고수하고 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는 편이다.

Vocation Training Center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우리 몸에 딱 맞게 맞춘 사리를 입고, 헤어에 메이크업까지 받으니 정말 인도 사람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허리를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코르셋처럼 몸을 꽉 조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리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다. 아이들이 공주님같다고 웃으며 말하거나 키스를 날려줄 때마다 괜히 올라가는 입꼬리를 숨길 수 없었다. 이 날 Competition에서 Naina 언니는 그간 연습했던 Garba 실력을 발휘하여 당당히 3위에 입상했다. 우리는 상금으로 초콜릿을 사서 아이들과 기쁨을 나누었다.

그리고 어제 Naina와 함께 온전히 내 것인 사리를 맞추러 Andheri Market에 갔다. 감을 고르고 제단을 맞겼으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음식부터 사람, 의복과 풍경, 관습과 음악까지 하나씩 하나씩 점점 빠져드는 인도의 생활이 하루하루 즐거움을 더해간다.

이우제(Rahul)

인도의 교육

인도팀에 End Poverty Campaign의 주제는 교육이었다. Campaign을 준비하면서 현지인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무척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End Poverty Campaign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Andheri지역에 거주하는 약 40명의 주민들과 여러 기관의 관계자와 미팅을 했는데 끝 순서로 '가난'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나는 '가난'이라는 주제를 던졌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난의 물질적인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교육'이었다. 성차별로 인한 여성들의 교육 문제와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인도의 높은 문맹률에 대한 이야기 등 교육의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지역 주민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정부 또한 교육에 힘을 쓰고 있었다. 성차별이 만연한 인도에서 여성이 교육받지 못하는 환경에 더욱 노출이 되어있다. 지금 라온아띠 단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YMCA Boy's Home에서도 정부의 여성 교육에 대한 노력들을 볼 수 있었다. 여성 교육에 대한 P/G을 개설 할 시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현제 YMCA Boy's Home에서는 학교 입학 전 여아들을 위한 Balwadi(Free School)를 개설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건물을 빌려서 공민학교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

Andheri지역 커뮤니티도 아이들의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길 바로 옆 보도에서 100여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차가 지나다니고 있어 약간은 위험해 보였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공부에 열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었다. 많은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기도 하고, 가정 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할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해 도중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언어가 무척 다양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끼리 클레스를 만들어야 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현대에 와서 많은 인도인들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인지 여러 학급에는 학급 또래와 비교할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정작 교육이 필요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접근도 힘든 것 같아 보였다. End Poverty Campaign을 '교육'이라는 주제로 확정하고 난 후에 나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에 대한 접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였지만 그 어떤 방법도 해답도 내지 못했다. 하루라도 빨리 정말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삶의 대한 고민이 아니라 자신의 꿈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난 아닐 줄 알았지~
우리나라는 아닐 줄 알았지~
배고픈 것인 줄만 알았지..
수능보다 더 어려운 단어..
코코몽 단편시집 -가난- 中.

오현지(Anushka)

인도의 11월과 피부 알러지

이미 11월이 온 지금 뭄바이는 여전히 덥고 모기들은 극성이다.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낮아 약간 쌀쌀한 듯 하고 시원한 바람도 불긴 하지만 여전히 오후가 되면 뜨거운 태양이 떠오른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정오와 낮 1시 사이에 우리는 매일 아이들과 등굣길을 함께 한다.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아이들과 수다를 떨 수도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등굣길을 오고 갈 때는 땀이 비 오듯 흐른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이 곳의 기온은 더위를 나름 잘 참는 나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과연 지금이 11월이 맞긴 한 것인지, 처음 인도에 도착했을 때의 9월의 기온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내가 가져온 긴 팔의 옷들은 언제쯤 입을 수 있는 것인지…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것이 꽤나 어색한 나에겐 지금쯤 추워지고 있을 한국의 날씨와 비교할수록 참 많은 생각이 든다. 시원한 날씨가 그리운 또 다른 이유는 모기 때문이다.

한국의 모기와는 달리 이 곳의 모기에게 물리면 처음에는 심하게 부어 오르지는 않지만 굉장히 가렵다. 아무 생각 없이 긁었다가 피부가 벌겋게 일어나게 된다. '별거 아니네. 조금 가렵다가 말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모기에게 물린 상처를 방치해 두었다가 점점 상태가 심각하게 되어 병원에 가게 되는 상황이 왔다. 이 곳의 환경이 아주 위생적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자칫 더러운 손으로 상처를 긁으면 심하게 부어 오른다. 한국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연고를 발랐지만,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고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것이 의문이었다. 알러지 약과 연고, 심지어는 알로에까지 열심히 발랐지만 결국 이 약들이 이 곳의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이 곳 약국에서 산 연고를 바르니 신기하게도 상처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밤마다 모기 때문에 가려워서 몇 번이나 깨는 나에게 평화를 선물해 준 셈이다. 한국에서 모기에게 물렸을 때의 상황과,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알러지의 종류의 처방은 이 곳과는 매우 다르고, 그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약도 달랐던 것이다. 피부가 예민하고 약한 나에게는, 인도에 오기 전 물이 맞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것보다도 모기에 물렸을 때의 가려움증을 어떻게 해야 할 지가 더 큰 문제였던 것이다.

인도에 와서부터 나의 발과 다리는 상처와 흉터로 얼룩지고 있다. 한 번 상처가 생기면 잘 아물지 않고 피부가 예민한 탓에 온 몸이 자주 가렵기 때문이다. 새카맣게 탄 것도 모자라서 상처로 얼룩진 나의 발과 다리를 볼 때마다 흡사 정글에서 사는 소년의 발이 떠올라서 조금 슬프다. 뭄바이에서 모기와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매일 밤 자기 전 연고를 바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느낀다.

이성수(Naina)

하나. 빈곤퇴치 캠페인을 통해 되돌아본 내가 겪고 있는 '빈곤'

10월 둘째 주에 진행된 빈곤퇴치 캠페인은 이 지역 학생들과 선생님, 주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도 '빈곤'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빈곤이라는 것이 비단 금전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게 있어서 빈곤의 개념을 확장하는 동시에 '내가 겪고 있는 빈곤의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는 그러한 빈곤 문제에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나 이 기간 동안 내가 다시 한 번 '빈곤' 이라고 인식했던 지점은 내 일상 속에 있어서 '평화의 빈곤' 이었다. 캠페인 준비를 위해 기관방문을 하다가 한 기관에서 '한국의 분단 문제가 걱정이다. 반드시 평화로워지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순간, 내게는 이들이 처한 환경이 빈곤인데 이들에게는 우리의 상태도 빈곤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게 모르게 분단이라는 사실은 내 일상에 있어서도 평화의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북에서 내려오신 할아버지의 가족들과 생사 여부도 모른 채 떨어져 살아야 하고, 친구들과 동생을 군대에 보내야 하고, 때로는 비논리의 결정체인 색깔론이 사고를 지배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기인하는 만성적인 불안들. 나는 그 동안 얼마나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민감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물음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빈곤에 실제로 처해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빈곤에 처해 있다'라며 그 개념을 확장하는 일이 이들에게 상처로 남거나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기력감으로 남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나의 빈곤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시작했듯이, 시월 한 주 동안이지만 빈곤퇴치 캠페인에 함께 참여했던 친구들도 조금은 더 크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본인의 미래를 그려보지는 않았을까 소망해 본다. 앞으로 남은 인도에서의 라온아띠 기간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서의 삶에서도 꼭 이런 것들을 녹여내며 살고 싶다.

둘. 인도에서 채식을 한다는 것

처음 채식을 시작했던 것도 인도 여행을 하면서였다. 이런저런 이유들(동물을 사랑한다, 동물들이 비인간적으로 사육되는 것에 반대한다, 육식으로 인해 자연파괴가 심각하다 등등)로 채식을 결심하기는 했지만 막상 지천에 널린 게 고기 요리인 한국에서(심지어는 라면에도 쇠고기 스프가 들어간다), 메뉴 선택의 자유가 항상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단체로 식사를 하러 가는 자리에서는 내 맘대로 음식을 고를 수가 없다, 특히 어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더더욱) 채식을 시작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그런 내게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할 수만 있을 것 같은 연초의 분위기와 채식이 보편적인 인도로 떠나는 여행, 이 두 가지 변수는 내가 자연스럽게 채식의 세계로 입문하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10개월 정도 조금은 부끄럽지만 주중채식(그렇다고 주말에 고기를 반드시 먹는 것은 아니다)을 실천하고 있다.

사실 나는 인도에서는 '채식주의자' 축에 끼지도 못한다. 처음에는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채식을 하고 있는 지라 ' 이러저러한 이유로 채식을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다녔지만 유제품과 생선을 먹는 나는 '그건 베지테리언이 아니다, 피쉬테리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다. 여하튼 이런 분위기가 반증하듯 인도에서는 채식 요리를 찾는 것이 정말 쉽다. 어느 레스토랑에 가나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를 구비하고 있고, 채식 요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도 많다. 실제로 인도 인구의 25-30% 정도가 채식주의자라고 한다. 인도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이유는 주로 종교 때문인데, 고기에 따라

위계체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소고기는 먹지 않으며, 무슬림에서는 돼지를 불결하게 여기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게 된다면 주로 이 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닭고기나 양고기를 주로 먹게 된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크리스찬은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고기를 먹는다는 것!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사는 곳이라 그런지 서로의 식사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듯 보인다. 누군가가 무엇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먹는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식사 자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는 듯. 한두 번 정도 내가 채식을 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모든 간식, 식사에 있어서 배려 받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인도에서 채식을 한다는 것! 그건 서로의 신념, 기호, 취향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법을 배우는 것 아닐까.

셋. 인도에서 춤바람 나다

인도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참 좋아한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세 시간에 달하는 영화 중간 중간에 마치 뮤지컬처럼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 꼭 들어가고, 대부분의 행사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이번 달에는 인도의 큰 축제를 즐기는 자리에서 사리를 입고 Garba라는 춤을 다 같이 췄다. 아마 백 오십 명 정도는 족히 되었을 것 같다. 인도의 구자라트 주(state) 전통 춤이라는데, 간단한 스텝만 알면 손동작을 이리저리 변형해서 나만의 춤을 만들어내 출 수 있다.

어디서 한두 대 정도는 맞고 온 것 같이 시퍼랬던 눈 화장을 하고,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스텝을 밟은 덕분인지, 나는 이 대회인지도 몰랐던 '가르바(Garba)' 춤 대회에서 자그마치 3등이나 하고 말았다. 소정의 상금을 받아 더욱 기분 좋았던 이 날에, 나는 우리가 지내고 있는 보이즈홈(Boys Home)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초콜릿을 한 봉지 사서 아이들과 나누었다. 역시 우리나라 속담처럼 기쁨은 나누니 배가 되었고, 인도 속담처럼 스윗(sweet)한 것을 함께 나누니 다들 달콤함에 빠져 스윗한 눈빛으로 나의 입상을 축하해 주었다. 박수를 위 아래로 치는 춤 때문에 모스키토(mosquito, 모기) 댄스라는 별명이 붙어 한동안 '모스키토 댄스 챔피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녀야 했던 것은 고역 아닌 고역이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이스 댄서'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한 동안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던데... 다음 전통춤은 무엇이냐! 내가 다 춰주마.